

###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난민 사태 대응의 중요성

Kristian Alexander Assistance Professor  
Zayed University

#### ■ 주요 내용

- 2011년 3월 발생한 시리아 내전 이후, 9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주변 중동국가로 이주하기 시작
- 저유가, 높은 청년실업률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GCC 국가들은 시리아의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및 경제적 영향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유럽 국가는 시리아 난민 유입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체된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mailto: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이슈 현황

### 2011년 3월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 이후, 9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피난민들이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라크와 같은 주변 중동 국가들로 이주하기 시작

- UN 난민위원회에 따르면, 시리아 피난민 중 400만 명이 주변 국가로 이동했으며, 내전 이후 요르단에만 63만여 명이 피난을 간 것으로 파악
- UN은 시리아 인근 국가에 피난민 지원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고자 노력
- 아랍에미리트는 인도주의적 지원금으로 약 5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840억6,000만 원)를 시리아 복구 기금으로 기부했으며, 2015년 1월에는 추가적으로 1억 달러(한화 약 1,102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
  - 아랍에미리트가 기부한 지원금 중 4,400만 달러(한화 약 484억8,800만 원)는 이미 난민들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쓰임.
- 2013년, 요르단에 위치한 므라집 알 푸드(Mrajeeb Al Fhood) 등 시리아 난민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난민 캠프에 약 7,200만 달러(한화 약 793억4,400만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피난민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시리아 내전 직후인 2011년부터 피난민의 영주권 허가 기준을 완화했으며, 10만 명 이상의 시리아 피난민이 아랍에미리트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24만2,000명 이상의 시리아 피난민이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그러나 해외 유력 언론사들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GCC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
  - 피난민을 위한 자금 지원보다 주거 시설, 난민 수용소의 미비를 비판하고 나섬.
- 반면, 아랍에미리트의 유력 언론사들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난민 지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추켜세웠으며,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음.

## 2

## 원인과 분석

☒ 국제 사회에서 아랍에미리트 측의 난민 수용을 문제 삼는 것은 각 국가의 지원 시스템 및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국제 기준에 근거한 비판에는 한계가 있음

-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 NGO 단체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 난민에 대해 재정적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섬.
- 또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GCC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고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이러한 국제 사회의 비판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시리아 난민에게 노동 비자를 발급하고 가족 소환 제도를 완화해 약 10만여 명의 난민을 수용했다고 반박함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NGO와 UN 난민 위원회의 난민 통계 자료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난민의 수만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측의 비공식 난민 수용 수를 꼬집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1951년, 1967년 제정된 UN 난민 협약 대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리아 난민 수용에 대한 법적 이행 의무는 없는 상황임.
  -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UN 아동권리협약 20조인 카팔라(Kafalah)법<sup>1)</sup>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 비자를 취득한 난민에 한해 국내로 입국시키고 있음.
- UN 난민 협약 대상 국가가 아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캠프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함.
  - 아랍에미리트의 재정 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난민 캠프는 요르단의 므라집 알 푸드 (Mrajeeb Al Fhood) 캠프임.
- 국제 사회가 비공식 난민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GCC 국가로 피난 간 다수의 시리아인들은 부유층에 속하며, 실질적 난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1) 편집자 주 : UN 아동권리협약 20조 카팔라 법은, 1)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을 박탈당했거나 아동에게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보호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회교법의 카팔라(Kafalah-빈곤 아동, 고아 등을 위한 교국의 위탁양육방법),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보호 시설에서의 양육까지를 포함한다. 양육 방법을 모색할 때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언어적 배경을 중시해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UN 아동권리협약(UNCRC), 유니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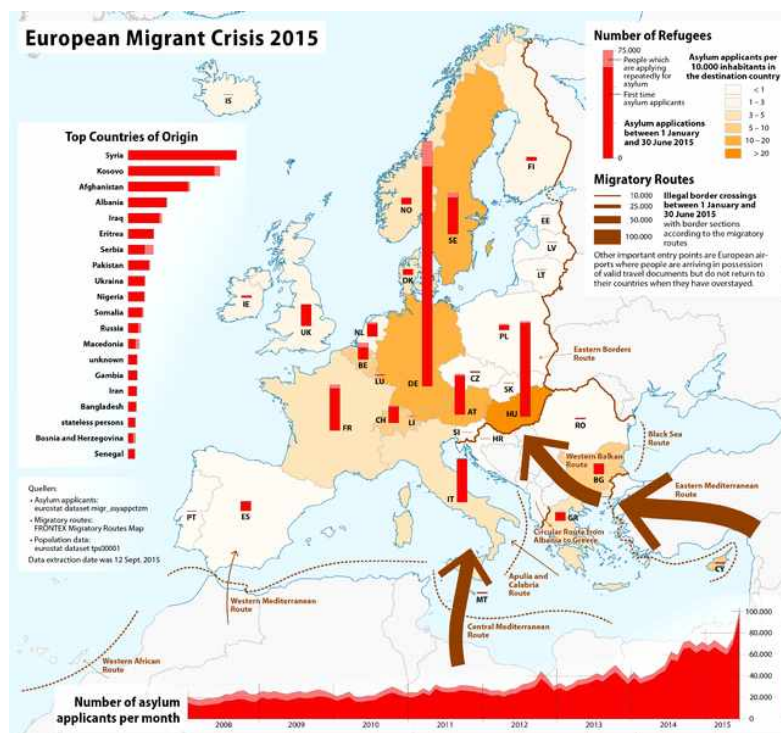
- UN을 비롯한 NGO 단체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주장하는 이주 난민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은 소수의 투자 이민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주장
- 또한, 아랍에미리트 측이 부유층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 내 소비 촉진과 시리아 본국과의 송금 거래가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함

## 3

## 전망과 시사점

- ☑ 저유가,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GCC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
- ☑ 그러나 유럽 국가는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현재 유럽 국가가 직면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체된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림 1. 유럽 난민 유입량 비교



자료 : Eurostat, 2015

- 유럽 국가들은 UN의 공식적인 난민 정책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하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좋은 것으로 파악
- 특히,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을 부여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과 임시 거주지, 언어 교육, 학비 지원, 노동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음.
-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젊고, 교육 수준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유럽 국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시리아 난민 80만 명을 수용한 독일의 경우, 2017년부터 약 60억 유로의 예산이 난민 복지 및 언어 교육 비용으로 배정
  - 일각에서는 독일의 난민 수용이 2020년 경제 성장률을 1.7%가량 증가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 **EMERiCs**

#### 출처

- Khun am, oron suutsny 2010 ony ulsyn toollogyn ur dun. [http://www.toollogo2010.mn/doc/Main%20results\\_20110615\\_to%20EZBH\\_for %20print.pdf](http://www.toollogo2010.mn/doc/Main%20results_20110615_to%20EZBH_for%20print.pdf) (In Mongolian).
- Dalaibuyan Byambajav. Christianity in Mongolia after socialism [https://www.academia.edu/9339647/Christianity\\_in\\_Mongolia](https://www.academia.edu/9339647/Christianity_in_Mongolia)
- Dalaibuyan Byambajav. Existential insecurity and social embeddedness: A study of Christian churches and believers in Mongolia. [https://www.academia.edu/25648151/Existential\\_insecurity\\_and\\_social\\_embeddedness\\_A\\_study\\_of\\_Christian\\_churches\\_and\\_believers\\_in\\_Mongolia](https://www.academia.edu/25648151/Existential_insecurity_and_social_embeddedness_A_study_of_Christian_churches_and_believers_in_Mongolia)
- Khun am, oron suutsny 2010 ony ulsyn toollogyn ur dun. [http://www.toollogo2010.mn/doc/Main%20results\\_20110615\\_to%20EZBH\\_for %20print.pdf](http://www.toollogo2010.mn/doc/Main%20results_20110615_to%20EZBH_for%20print.pdf) (In Mongolian).
- Istoriya pravoslaviya v Mongolii. <http://www.pravoslavie.mn/istorprav.html?did=80> (In Russian).